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 운용인력 부족 활용 ‘미미’

‘응급실 뺑뺑이’ 방지 위해 도입
응급실 인력 부족에 이용률 저조
여전히 전화 돌려가며 병원 찾기
“활성화 위한 병원 협조 적극 추진”

환자가 병원에 제때 이송되지 못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광주·전남 소방본부에서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작 운용 인력이 부족해 실제 현장에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은 지난해 2월 소방청이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한 중증도 분류 및 병원 이송 등을 목표로 구축한 응급 대책의 일환으로, 대구에서 시범 추진된 후 전국으로 확대돼 현재 전국 모든 구급대에서 시행 중이다.

광주·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지난해 2월1일부터 119구급스마트시스템 운영에 나섰으며, 현재 광주 33개대, 전남 139개대 등 모든 구급차량에 도입됐다.

시스템은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태블릿 형태의 단말기에 ‘M119현장지원시스템’을 설치하면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새로 구축된 해당 시스템은 이전 ‘구조구급활동 정보 시스템’의 상위 버전으로 기존 구급 활동 일지 작성 및 증명서 발급



광주소방본부 소속 구급 대원이 119구급스마트시스템에 환자 상태를 입력하고 있다.

광주소방본부 제공

업무는 물론 119 안심콜 서비스 등까지 가능하다.

또 시스템에 환자 상태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각 의료기관에 동시 전송돼 각 의료기관의 상황과 지역별 이송지점 등을 고려해 환자에게 최적의 병원을 골라 구급대에 안내하는 기능까지 구축된 종합 시스템이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빠르게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해당 시스템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구급대원이 일일이 병원에 전화해 환자 이송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있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는 21곳의 응급의료기관에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응급실에 인력이 부족해 시스템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다.

전남 역시 54곳의 응급의료기관과 협

조해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환자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 할 전문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전화로 환자 이송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병원 측에서 계속 환자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지역에는 전문 코디네이터가 배치된 의료기관이 없어 빠르게 피드백을 주고받기 어려운 상태다.

현재 소방본부는 사·도 내 병원을 대상으로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광주·전남 소방본부는 119스마트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스마트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에서 매일 새롭게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계속해서 사고가 접수됐는지 모니터링해야 하는데, 의료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때가 많다”며 “아직 스마트 시스템 도입이 1년밖에 되지 않아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더 활성화가 필요해 보인다. 병원의 협조를 위해 각 소방본부에서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적극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협조 요청을 진행 중이지만 의료진이나 병원에서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아직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라며 “전북에서는 병원에 전담 코디를 선정해 운영하면서 체계적인 환자 이송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역에서도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환자가 빠르게 이송돼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삼아 기자 sangja.jeong@jnilbo.com

광주서 순찰돌던 경찰관 피습... 제압 중 경찰 총격에 숨져

경찰, 총기 사용 적절성 여부 조사
경찰직협 “정당한 공무수행 중 발생”

새벽시간대 광주 도심에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가 제압 과정에서 경찰 총격에 숨졌다.

26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11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4가 금남로공원 건너편 예술의거리 인근에서 50대 남성 A씨가 금남지구대 소속 경찰관 B(55)경감의 이마와 볼에 흉기를 휘둘렀

다. 이로 인해 B경감은 얼굴에 큰 상해를 입고 A씨를 제지하기 위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했다.

실탄에 맞은 A씨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얼굴에 상해를 입은 B경감도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뒤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신원 미상의 남성이 집 앞

까지 쫓아왔다”는 한 여성의 신고를 받고 순찰에 나섰다. 현장에서 마주친 A씨의 신원확인을 위해 다가가자 그는 가지고 있던 종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휘둘러 경찰을 위협했다.

A씨의 흥분 상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B경감과 출동했던 동료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무용지물인 상황이었다. 이에 B경감이 공포탄 1발을 발포해 제압하려 했지만 A씨가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고 목 부분에 재차 공격을 시도하자 B경감은 실탄을 발사했

다. 실탄 1발을 몸에 맞고도 공격이 계속됐고 몸이 뒤엉킨 순간 두 번째 발포와 세 번째 발포가 이어졌다.

A씨는 배와 왼쪽 옆구리, 왼쪽 가슴 등 상체 3곳에 총상을 입은 뒤에도 골목길을 돌아 도주했고, 지원요청을 받고 나온 또 다른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나서야 쓰러졌다.

현장에서 치명상을 입은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끝내 숨졌다.

경찰은 흉기를 휘둘러며 격렬하게 저항하는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고 실탄을 세발 발사, 피의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

해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광주경찰 직장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가 사망한 것은 안타깝지만, 정당한 공무수행과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휘부에서는 중상당한 경찰관에게 보호 지원, 위문과 격려 등을 통해 동료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면서 “현장의 동료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의 CCTV 등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민현기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